서울시 9개 도심공원, '여름방학 한정' 특별 프로그램

서당체험 · 조경학교 등 색다른 체험도 하고 봉사시간도 인정받는 1석2조

메르스 휴교(휴업)로 전년보다 1~2주 짧아진 여름방학을 아이들이 보다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가 시내 9개 공원에서 38개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9개 공원은 · 남산공원 · 낙산공원 · 중랑캠핑숲 · 서울숲 · 길동생태공원 · 보라매공원 · 월드컵공원 · 서서울호수공원 · 서울어린이대공원이다.

자연을 체험하면서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부터 공원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을 탐사하는 프로그램, 생태체험캠프, 별자기 관측, 가족극장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서울시는 주요 프로그램을 주제별, 공원별로 소개하는 한편, 대부분 프로그램이 선착순 사전신청으로 참가자를 모집하는 만큼 예약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우선, 자연 속에서 체험활동도 즐기고 자원봉사활동 시간(2시간, 1365 자원봉사포털 사후 등록)도 인정받는 남산공원 등의 1석2조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산공원 : '남산 소나무사랑 환경봉사'(7.19~26 매주 일)는 초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단위로 참여, 직접 피켓을 만들어 남산 소나무의 소중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비 무료.

남산 호현당 : 유건과 도포를 입고 한자의 기본원리와 예절을 배우고 한옥 환경정화활동도 펼치는 '서당체험'(7.30~8.19 매주 수)에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 무료.

중랑캠핑숲 : '중랑숲사랑 봉사활동'은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종에 대해 제대로 배우고 숲 지키기 활동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참가비 무료.

보라매공원 : 지난 겨울방학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어린이조경학교'(7.29~31)가 다시 찾아온다. 조경학과 교수들과 함께 3일간 내가 상상하는 공원 만들기, 꽃 화분 만들기 등을 진행하며 내가 만든 작품은 가져갈 수 있다. 참가비는 1만 원이며, 참가대상은 서울 소재 초등 고학년이다.

자연과 함께 놀며 배우는 '숲속학교 프로그램'과 공원에서 놀며 방학숙제도 해결할 수 있는 '여름숲 놀이캠프'도 열린다.

남산공원 : 여름철 대표곤충인 매미의 종류와 울음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나무에 매달려 매미가 돼보는 놀이도 즐길 수 있는 '매미들아 반가워'(7.24~31 매주 금), 남산의 밤바람을 즐기며 밤에 우는 새와 벌레들, 박쥐와 나방을 배우는 '남산 야간 숲길 산책'(7.24~8.21 매주 금)도 즐길만하다.

남산 호현당 : 여름방학 정기 프로그램으로 뿌리글자 기초부수를 배우는 '사자소학'(7.29~8.19 매주 수)과 남산팔영과 자연과 연관된 한자를 함께 배우는 '자연생태한자'(7.31~8.21)도 진행한다.

중랑캠핑숲 : 최악의 가뭄을 통해 물의 소중함을 배우는 '가뭄에서 살아남기'(7.19~26), 가족단위 캠핑객 대상 '중랑숲 밤길 산책'(7.24~31)을 진행한다.

보라매공원 : 보라매공원 와우산에서 숲놀이 강사, 산림생태 전문가, 아이들이 함께 즐겁게 노는 가운데 숲속 곤충호텔 만들기, 곤충표본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는 '여름숲 놀이캠프'(7.21~8.13 매주 화 · 목)를 운영한다.

식물, 동물, 곤충 등 공원에 사는 다양한 동식물을 직접 탐사해보는 '어린이 자연탐사대'(8.11~13)는 · 길동자연생태공원 · 서울숲 · 보라매공원 3개 공원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첫째~둘째 날은 공원에 사는 식물과 동물(곤충)의 생물종 다양성을 비교해본다.(공통과제) 셋째 날은 각 공원별로 · 조류(서울숲) · 거미(길동생태) · 도시농업(보라매)에 대해 탐구하고 배울 수 있다.

서울시는 각 공원별 프로그램도 소개했다.우선, 강동구 길동자연생태공원은 · 흰티를 하늘빛으로 물들이는 '열두 달 천연염색'(7.28) · 천연목화솜과 소원지를 넣은 부엉이인형을 만들어보는 '소원 부엉이 만들기'(7.26, 31) · 미술가와 함께 공원을 돌며 아름다운 자연물을 동양화로 표현해보는 '길동의 사계'(7.30) 등 아이와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들이 마련된다.

성동구 서울숲에서는 초등학교 3~5학년을 대상으로 무박2일 생태체험캠프를 진행한다.(8.6~7, 13~14) 친구들과 함께 자연에서 뛰놀며 우정을 쌓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찾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추천. 참가비 3만원.

또, 다양한 숲 속 곤충을 한자리에서 만나보는 '숲 속 곤충 대 탐험전'(7.25~8.9)이 무료로 개최된다. 전시기간 중 주말에는 어린이 곤충아카데미를 함께 운영한다. 참가비 5천원.

상암동 월드컵공원에서는 자연물을 이용해 생활물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모기들이 싫어하는 천연향으로 모기퇴치제 만들기, 공원에서 나오는 폐목으로 미니 선풍기 만들기, 자연물을 이용한 향초와 제습기 만들기 등이 7월31일(금)~8월22일(토) 매주 금, 토요일에 열린다. 참가비는 1천원~3천원.

월드컵공원 내 노을캠핑장에서는 매주 토요일 밤,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와 함께 하는 별자리 관측 체험을 진행한다.(7.25~8.22) 도심 속에서 우주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달봉이(달모형) 만들기 체험 및 달바다(달의 어두운 현무암질의 넓고 편평한 지대) 관측, 월별 주요 별자리 찾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야간 프로그램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들은 보호자 동반으로 참여해야 한다.

월드컵공원 내 평화의공원에서는 금, 토요일 저녁마다(7.31~8.28) 열대야로 잠못 드는 시민들을 위한 가족극장이 열린다. 이번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겨울왕국〉 등 한여름 무더위 속에서 시원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영화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는 8월10일부터 2주간 월~금 매일 오후 5시 어린이건강산책을 진행한다. 성인병 및 비만 예방을 위한 어린이체형진단과 건강한 걷기 자세를 배울 수 있다.

8월 1일(토) 하루 동안 열리는 여름방학맞이 특별 행사에서는 · 함성 대회 · 물풍선 던지기 · 큐피트의 물총놀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동시에 날려버릴 수 있다.

광진구 서울어린이대공원에서는 동물을 좋아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방학 동안 월~토 매일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동물탐험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교재를 통해 동물의 생태를 배운 뒤 동물 특성에 맞는 먹이 관찰 및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다. 참가비 1만원.

8월 8일~9일애눈 물총싸움, 물벼락파티를 즐기는 '한 여름날의 물놀이'가 진행된다. 참가비 2천 원.

서울어린이대공원 내 능동숲속의무대에서는 27년간 클래식 대중화를 선도해 온 서울팝스오케스트라(지휘: 하성호)의 숲속음악회가 매달 둘째, 넷째 주 토요일 저녁 7시에 열린다. · 7월25일 '시네마 콘서트' · 8월8일 '재즈 인 더 시티' · 8월29일 '한여름 밤의 꿈'

김태우 기자

청계천 수상패션쇼 재개

서울시설공단은 동대문 패션타운 인근 청계천 수상무대에서 '청계천 핫 앤 쿨(Hot & Cool) 패션쇼'를 개최했다.

청계천 수상패션쇼는 동대문 패션타운 인근을 패션명소로 부각시키자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개최되고 있다. 지난달 개최예정이었던 6월 청계천 수상패션쇼 행사는 메르스 때문에 취소된 바 있다.

이번 패션쇼는 '청계천으로 떠나는 여름 방학'이라는 주제로 저녁 8시부터 9시반까지 약 90분간 여름철 수영복 및 운동복 패션을 선보인다. 또한 여성 전자클래식 그룹 샤인의 공연도 펼쳐졌다.

서울시설공단 오성규 이사장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메르스로 인해 중단했던 서울내 주요 시설의 행사를 재개할 계획이다"며 "앞으도로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계천 수상패션쇼 관람은 무료이며 오는 10월까지 매월 둘째주 토요일마다 다양한 테마의 수상패션쇼가 개최될 계획이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로 놀러오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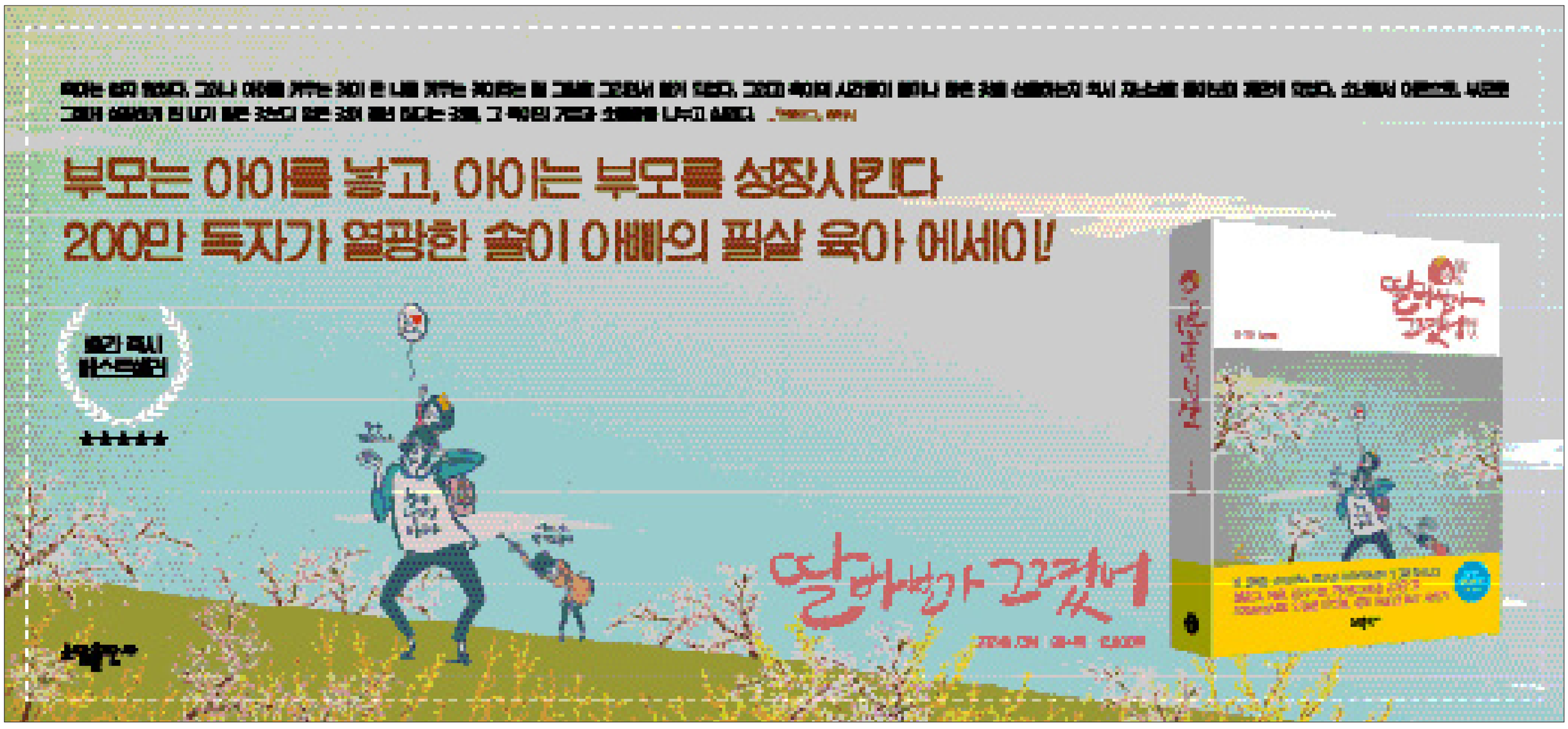
여름방학 맞아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서울에너지드림센터(센터장 김혜애)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을 맞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서울에너지드림센터는 친환경 건축의 이해를 높이고 직접 설계,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청소년 친환경 건축교실'을 7월 12일(일), 18일(토), 19일(일) 3회에 걸쳐 운영한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친환경건축의 이론을 배우고, 모둠별 제로에너지하우스 설계와 건축 실습을 통해 에너지자립마을을 만들어보는 등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다. 8월 5일(수), 12일(수) 2회에 걸쳐 어렵고 지루한 에너지와 탈핵교육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게 재구성해 토론과 발표 등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역동적인 어린이 탈핵학교를 운영한다.

초등학교 4학년 이상 대상으로 에너지와 탈핵에 대한 교육과 모둠별 토론, 발표 및 폐자원 활용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외에도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는 자전거발전기, 태양광으로 가는 비행기, 블랙아웃체험관, 수소연료전지발전기 등 전시물 관람과 체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홍보관 투어'와 제로에너지건물 설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건축 투어'와 2015 서울환경작품공모전 수상작품 전시회와 이클레이 총회 특별전시도 운영하고 있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방식으로 운영되며, 참가문의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 홈페이지 또는 운영사무실로 하면 된다.